



동양피스톤, 2분기 매출 855억원... 전년比 16.8% 성장

- ▶ 해외 수출 증가 및 국내·외 계열사들의 선전으로 전년比 성장세 달성
- ▶ 글로벌 고객사 확대 및 해외공급 물량 증가로 실적 확대 이어나갈 것

<2018-08-14> 자동차 피스톤 명가 동양피스톤(092780, 회장 홍순겸)이 올해 2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55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 당기순이익 4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6.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2.8%, 32.7% 상승하며 전방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성장에 주된 요인은 해외 수출 증가 및 국내·외 계열사들의 선전으로 풀이된다.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완성차항 매출 비중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기에 국내를 포함해 미국, 멕시코, 중국 소재의 계열사 모두가 일제히 성장세를 보이며 볼륨 확대에 기여했다.

원화 강세(전년동기대비 원화 약 5% 절상)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을 달성한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동차 업황 부진을 이겨내고 올해 1분기 대비 59%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견조한 사업 구조를 증명해냈다.

동양피스톤 관계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 해외 공급 물량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성장구조 유지가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동양피스톤의 성장을 자신한다"고 전했다.

■ 자료문의 : 동양피스톤 허재령 선임 (031-4899-040)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